

지

난 94년도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겨 본다.  
(그곳엔 이미 지나간 94년 1년간의 연중 계획이 있다.)

계획대로 시행된 것 보다는 예정으로 그친 것이 항상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래도 계획한 것은 지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던 만큼 그 자체로 하나의 보람일 수도 있다.

결과에 만족지 않음은 앞으로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계획했던 것들이 대부분 사업확장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던 만큼 지난 1년은 잠깐 돌이키고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보다 많은 회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한 해로서 기억하고 싶다.

## 시대변화의 대비

Provide for the Changeable Streams

崔英權/건축사사무소 21

by Choi, Young-Kwon

세미나나 전시회 참관에 더욱 많은 시간을 갖기로 예정하였던 것은 평상시의 건축계획에 임함에 있어 이미 사회의 타성적 관념과 건축관계법 규정만을 먼저 떠올리는 무의식적 행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픈 의도적 계획이었고, 학생작품 전시회나 건축전을 보다 많이 찾음으로 고정관념 탈피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가능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본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법규정을 벗어난 작품세계는 실현불가능의 그림일 뿐이라는 의미를 지울 수 없게 된다.

창작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실무에서 법규정의 신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필요성에 따라 관계 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한 예로서 약 10여년 전의 서울시 주차관계규정을 떠올려 볼 때, 당시 총주차대수에 대한 옥외 주차 의무 비율에 있어서 25%~50%를 옥외에 의무적으로 확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총주차대수 400여대의 건물을 계획할 경우 옥외에 100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였고 대지내 공지는 온통 주차장으로만 덮이며 녹지나 광장의 개념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억이었고 최근 신축된 빌딩가의 광장을 거닐다 보면 이 조항의 삭제는 필연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때로는 외국의 Land Mark적 건물에 감탄하고 국내에도 그와 버금가는 작품을 추구하고픈 바람은 모든 건축가의 공통점이랄 수 있다. 그러나 고층 빌딩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여 보았던 건축가라면, 국내에서는 실현키 어려운 것을 종종 느끼게 된다. 일례로 뉴욕의 City Court Center, Dallas의 Allied Bank Tower, 홍콩의 중국은행 타워 등은 건물 상단이 예각을 이룬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법상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일 경우 옥상에 10~22m의 헬리포트가 의무조항인 것을 감지할 때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형태인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재해시의 피난에 불가피한 규정이라면 건축가의 디자인적

Scheme에 우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다 상징적 이미지의 건물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창작세계에 그 상상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이와는 또다른 하나,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극히 일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곧 북측 일조권 제한의 모순이 그것이다. 기존 북측대지의 민원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언제가는 바뀌어야 할 모순된 규정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나간다. '희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미화되기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을 생각할 때도 이미 북측 일조권의 불합리함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시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진 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의 모습도 같은 모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주택이라면 통상 '20년'을 '가치적'수명이라고 추정할 때 앞으로의 20년후(서기 2015년)의 후회를 눈에 떠올릴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건축인으로서의 나 자신을 비춰본다. 일상 접하는 모든 환경자체가 우리의 작품대상물이며 작품의 배경 역할인 것은 건축인의 행운인 것으로 느껴왔다. 연극인이 가상의 많은 삶과 환경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작품세계는 실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방식에 보다 가까이 하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적 효과까지도 고려한 고차원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형적 요소를 기본으로 한 설계로 그치지 않고 색감과 음향, 빛을 통한 인간본위의 환경계획이 될 때 비로소 효과적 건축물의 역할을 이룰 수 있음에,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연구과제와 노력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은 틀림없다.

좀더 아름다운 건물을 계획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건축사의 바람이었으나 최근의 여론과 시선은 오히려 예술창작의 작가적 영역보다는 부수적 영역의 공사 감리자로서의 감시인적 역할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때 심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싶다. 도면에 표현되지 못한 부분의 보충으로서 또는 설계상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의 보완을 위한 '감리'형태가 우리의 염원이라면 이 또한 앞으로의 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기본으로 한 준비과정으로 삼는 계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 경쟁력에 대비하는 준비가 점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진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둘

이키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변화로의 선택은 단지 우리 자신의 앞에 가로놓인 유리 한장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 유리면을 사이로 안쪽이 밝을 때 빛은 투과되어 들어오나 반대로 안쪽이 어두울 때는 그 빛을 되반사하고마는 거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최근 수년내에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작업이 수작업에서 컴퓨터화한 경우도 보게 된다. 실무작업을 전담직원이 맡는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자가 컴퓨터를 모른다면 그 효과적 운영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관리지침까지도 실무자에게만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컴퓨터의 활용은 워드프로세서의 기능,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 디자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망라하여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서는 그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며, 컴퓨터의 활용은 그 기기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인정키 어려운 것이고 우리 자신의 무던한 노력과 연구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AD에 있어서 컴퓨터적 요소만을 과신하여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CAD는 그 원어 그대로 '컴퓨터의 도움에 의한 디자인'인 것이므로 순수한 디자인적 아이디어는 사용자의 머리에서 착안되어야 하며, 디자인적 요소가 빠진 CAD는 이미 작도로서의 역할이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단순 기능역할에 그치므로 그 응용은 건축사를 포함한 계획자 모두의 과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작업에서는 힘들었던 대형라운드형 건물의 예에서도 CAD 작업으로는 자유로움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디자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컴퓨터화가 보편화한 것에 비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아직 예전의 모습인 것을 볼 때,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컴퓨터나 CAD로 평소 작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험문제에도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루기는 힘든 것이며, 모든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단계적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내 모습일 듯 싶다.